



누나의 속옷이 좋아요

옥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부모님은 맞벌이 직장 생활로 늦게 오시므로, 누나와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털어 놓는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여자의 몸에 호기심이 많 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누나가 없을 때 누나 물건에 손을 대 기 시작했어요. 스타킹, 팬티, 브래지어 등을 그냥 가져와서 냄새를 맡아보고, 자위 행위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누나 팬티로 자위 행위를 하다가, 누나가 예정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들켜고 말았습니다.

누나는 아무말 없이 팬티를 가져갔 고, 그 뒤로 누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요.

어떻게 하면 좋 지요. 전 누나랑 좋 은 사이로 다시 돌 아가고 싶어요.



누나의 물건을 가지고 자위 행위를 하다가, 누 나에게 들켜서 서로 난처한 입장에 빠진 남 — 학생이시군요.

사춘기가 되면 여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 기는 것은 당연하고, 성적인 욕구를 자위 행위로 해 소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엉뚱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위 행위의 도구로 누나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00님도 아시겠지요?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성의 물건을 가

지고 자위 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면 특정 한 물건에 대해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것을 “몰품 음란 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성의 물건 이 없으면 자위 행위를 할 수 없어지고, 나중에는 여 성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 흠치는 행동으로 발전하기 도 하며, 결혼을 해서도 올바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00님은 누나의 팬티가 촉감도 좋고 모양이 예 빼서 냄새도 맡으면서 이를 가지고 자위 행위를 했 다고 하지만, 00님이 하고 있는 행동은 혼자서 고 칠수 없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아끼는 남동생이 자기의 속옷을 가지고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 까요?

아직 어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누나에게 는, 동생이 자위 행위를 하는 것도 놀라울 것인데, 자신의 팬티를 가지고 자위 행위를 할 때는 동생이 낯설고 싫은 느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00님이 말로 표현하기 힘이 든다면 전화나 편지로라도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의 글을 보내는 것 이 어떨까요?

누나도 난처하고 거북한 마음을 떨쳐 버리고 하 루빨리 동생과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을 텐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애대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잡아주 고 위로해주며, 등을 다독겨줄 사람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오누이로서 자리매 김해서, 멋진 남동생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